

“신분증·개인정보 요구하면 금융사기 의심”

■ 대학 새내기 대상 사기 기승 ... 올바른 대처법

“부득이 대출 필요땐 한국장학재단 등 이용을”

대학생 A씨는 어렵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사장은 월급이체에 필요하며 A씨에게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예금통장을 요구했고, A씨는 의심 없이 이를 넘겨줬다. 그러나 업체 사장은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잠적했다.

대학 새내기를 상대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자칫 미숙한 대처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을 위한 ‘금융위험 대처법’을 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등록금 부담 등 대학생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한 대출사기는 대출을

대신 받아주면 일부를 떼어주겠다고거나, 통장과 공인인증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대학 강의실 방문판매 사기가 급증하는 등 대학생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대학생 B씨는 학교 선배의 요청으로 예금통장과 카드를 빌려줬다가 낭패를 봤다. B씨의 선배는 통장과 카드를 빌린 대가로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했지만 사기였다. 얼마 뒤 B씨는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 처지가 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학가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거나 신분증, 공인인증

서, 통장 및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며 접근할 경우 우선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신입생들은 가능한 한 대출을 자제하는 게 맞고, 부득이 대출을 받는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이용할 것을 권했다.

이와 함께 대출사기를 당했을 때 즉시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하고 개인정보가 유출했다면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 영업점에 신고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clean.kisa.or.kr)를 활용, 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영업사원의 말에 혹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판매업체나 카드사를 상대로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필요도 있다. 단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클릭하지 않는 버릇을 들이고 카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건전한 소비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는 신용등급 산정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거래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는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연체 정보가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돼 다른 신용카드로까지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금감원 금융고실(http://edu.fss.or.kr/fss) 또는 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http://consumer.fss.or.kr)에서 더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84.77 (-8.05)
- ▲ 금리 (국고채 3년) 1.94% (+0.01)
- ▼ 코스닥 621.99 (-7.27)
- ▲ 환율 (USD) 1122.60원 (+10.50)

효성,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단 출범

단장에 이상운 부회장

효성은 10일 전북도와 함께 지난해 11월 문을 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역량을 모은 창조경제지원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지원단을 맡았으며 부단장에는 효성 전략본부 가중현 전무가 선임됐다. 가 전무는 SK텔레콤과 벤처기업 등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다.

창조경제지원단은 탄소 수요 확대와 농산물 마케팅, 게임산업 육성, 한지 사업화 등의 창조경제 활성화 지원과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경영 멘토링, 산학협

동 탄소 전문가 육성 등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활동을 주축으로 운영된다.

효성은 전략본부, 무역PG, 정보통신PG, 기술원 등의 사업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임원을 책임자로 배정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효성은 2013년 5월 전주에 탄소섬유 공장을 준공했고 공장 내에 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를 건립 중이다.

이 부회장은 “효성과 전북이 함께 육성할 탄소산업은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릴 만큼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전북을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lexian@kwangju.co.kr

전기공학 대학생 76명에

한전, 장학금 6억 지급

한국전력이 전국 전기공학 전공 대학생 76명에게 6억원 규모의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9일 본사 비전홀에서 열린 ‘전기공학 전공 대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조환익 사장은 대학생 76명에게 인당 800만원씩 장학금을 건네고, “창조경제의 주역인 전기공학도들이 미래 에너지분야의 동량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은 한전의 장학 지원을 통해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열렸다.

/임동률기자 lexian@kwangju.co.kr

전기공학 전공 대학생 장학증서

2015. 3. 9 한국전력공사



지난 9일 한전 본사에서 열린 ‘전기공학 전공 대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가운데)과 장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전 제공>

부회장단 “광주상의 회장 합의 추대 돼야”

7명 모임, 박홍석·김상열 후보에 촉구

광주상공회의소 제21대 부회장단이 오는 20일 치러질 광주상의 제22대 회장 선거를 놓고 반드시 합의 추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유력 후보인 박홍석 현 회장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대응적인 결단을 요청한 것이다.

10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부회장단 7명은 지난 9일 광주의 한 식당에서 만남을 갖

고, 제22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가 단결과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두 회장 후보에 합의추대라는 큰 결단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회장단은 “3월12일 실시되는 제22대 광주상공회의소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가 최근 극도로 과열돼 지역 경제계가 회장 후보군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분열되는 양

상을 띠고 있어 지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한 뒤 11일 정오까지 부회장단의 요청에 대해 두 후보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회장단은 답변 상황에 따라 이후 또 한번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 다.

이와 함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두 회장 후보자에게 ▲제22대 의원·특별의원 선거 전이나 후를 가리지 않고 합의해 경선 없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선거 기간 동안 분열 양상을 보인 지역 상공업계를 하나로 묶어 지역 경제발전에 함께 노력해 줄 것 ▲지역 상공업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광주상의의 설립 의미를 더욱 발전적으로 확대·계승 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부회장은 유희열 세화이앤씨 회장, 김홍균 남선석유 회장, 김성산 금호아시아나그룹 부회장, 이기상 대우전기 대표, 박치영 모아종합건설 회장, 김규홍 영진건설 회장, 최상준 남하도건 대표이사 등 7명이다.

/임동률기자 lexian@kwangju.co.kr

광주은행, 금융권 최초 ‘이체시간 지정서비스’ 실시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안전한 스마트폰뱅킹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고객이 직접 자금이체 시간을 지정하는 ‘이체 시간 지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자금이체 가능 시간과 요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지정시간 이외에는 자금이체가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을 잘 사용하지 않거나 전자금융사기 취약시간대인 새벽이나 심야시간, 주말 등을 자금이체가 불가하도록 지정하면 이 계좌에서는 해당 시간대에 출금이

이뤄지지 않도록 막아준다.

광주은행은 이 서비스 실시로 보이스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고객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은행은 폰뱅킹 이용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자금이체 한도를 1일 100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축소했다. 더불어 1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자금을 이체할 때 최근에 본인이 입금한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2채널 인증 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새 얼굴

“산·학·연 소통 ... 화합의 장 만들것”

배정찬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업무 중심의 조직혁신을 통해 잘 못된 구태를 바로잡고, 조직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10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제7대 원장에 취임한 배정찬(61) 신임 원장은 “직원은 물론, 기업인 및 연구기관 등과의 소통을 통해 산학연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며 “행복한 리더, 일 잘하는 조직으로 광주테크노파크를 변신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 우리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담보하

는 첨단 융복합 산업의 전초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재임 기간 동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원장은 서울대를 졸업한 뒤 미 위스콘신 메디슨대학원 공학박사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본부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연연구본부 수석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임동률기자 lexian@kwangju.co.kr

1636 곁고 믿음소망 말하세요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국가보훈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제),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술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가사 35-64세</p> <p>'무지녀 남성' 희망 28-48세</p>

강남역 7번출구 70m 444명 010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